



“환절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챙겨주세요”



반려동물의 호흡기 건강

정기 예방접종 등으로 면역력 높아야 공기 상태 확인... 적정 온·습도 유지 특수동물들은 사육장 환경 쾌적하게

흐드러지게 피었던 벚꽃도 하나 둘 지면서 거리에는 봄기운이 더욱 진하게 묻어나고 있다. 추운 겨울 내 움츠려 기다렸던 봄이지만 봄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황사와 미세먼지는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다. 여기에 들쭉날쭉한 일교차까지 더해져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반려동물은 어떨까? 동물들도 사람처럼 호흡기 질환에 걸릴 수 있는지, 질병 예방 및 호흡기 건강관리를 위해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Q. 바깥 외출을 하지 않는 동물도 호흡기 질환에 걸릴 수 있나?

A=반려동물에게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들 요인은 단독적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체는 매우 미세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실내로 쉽게 유입될 수 있다. 따라서 바깥 외출을 전혀 하지 않고 실내에서 생활하는 비중이 높은 고양이와 같은 동물들도 호흡기 질환에 걸릴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Q.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A=특정 원인체에 의한 감염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예방 접종이 필수이다. 예방 접종을 통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체(바이러스, 세균 등)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고 건강한 면역이 형성되게 된다. 다만 한 번 형성된 항체는 시간이 지나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마다 보강 접종을 통해 항상 면역력을 높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반려동물들은 사람에 비해 체구가 작고 호흡기계의 용적이 적기 때문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에

노출돼도 호흡기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가정에서 접촉할 수 있는 자극성 물질은 먼지, 방향제, 향수, 스프레이, 향초, 연기 등이 있으며, 가급적 이러한 물질을 흡입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내에 온습도계를 설치해 실내 공기 상태를 항상 확인하고,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주면 더욱 좋다.

Q. 특수동물들도 호흡기 관리가 필요한가?

A=조류, 소형 포유류, 파충류 등의 특수동물들도 호흡기 건강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대부분의 특수 동물들은 원래 우리나라에 살던 동물들이 아니므로 계절변화에 취약할 수 있다. 가정에서는 이들 동물이 원래 살고 있던 환경의 온도와 습도를 맞춰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어야 한다. 밀폐된 사육장 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동물들의 경우 사육장 환기가 중요하다. 밀폐된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내부에서 각종 오염원이 축적되고 감염체들이 증식되기 쉬우므로 하루 수회 환기를 통해 쾌적한 사육장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김윤기 제주주요동물병원장

영화관

문소리가 들릴 때



'세자매'의 배우 문소리.

‘소통과 거짓말’, ‘해피 버스데이’를 통해 독립영화와 통속극의 한계를 끝까지, 온몸으로 체험한 결과물을 내어 놓았던 이승원 감독의 작품 ‘세자매’는 그의 전작들과 결을 같이 하면서도 전혀 다른 느낌이 나는 작품이다. 전작들이 가진 다짜고짜의 뜨거움과 난데없는 서늘함은 여전했지만 ‘세자매’는 좀 더 축축한 느낌이 들었다. 이 영화는 약간 흥건한 정서가 있는 블랙 코미디이자 격렬하면서도 끈끈한 가족 드라마였는데 뭘지 모르게 애잔했다. 아마 이 불타는 집에 물을 뿌리는 사람 덕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바로 세자매의 둘째 미연 역할을 맡은 배우 문소리였다. 그렇다 문소리. 배우 문소리는 ‘세자매’의 제작자이자 프로듀서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세자매’는 이승원의 작품인 동시에 문소리의 작품이기도 하다. 20년 차가 넘은 월드클래스의 배우가 독립영화의 지휘자로 다시 도전의 문턱에 선 것이다. 역시 문소리였다. 물을 뿌리면 서 물을 뿌릴 수 있는 배우.

‘세자매’의 미연은 이를테면 생활형 광기를 때 순간 장악하고 가족이라는 불협화음의 집단의 일원들이 솔로곡을 부를 순간을 애써, 굳이 만들어내는 인물이다. 성가대의 지휘자인 동시에 두 가족의 조율사인 그녀는 외출 타기 하듯 위태로운 허영과 스스로가 부여한 막중한 책임감으로 살아가는 인물이다. 수많은 난관 앞에서 미연은 특유의 확신으로 돌파구를 찾아내는데 이 버거워 보이는 캐릭터는 온전히 배우 문소리의 설득력으로 완성된다. 그녀가 입을 열 때, 대사를 말할 때,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닫아 버릴 때 문소리는 작품에 피가 되고 살이 됐다. 아, 이런 것을 ‘육화’라고 하는구나. 그래 ‘문소리’라는 통째로 작품 안으로 들어간 것이구나.

‘박하사랑’과 ‘오아시스’라는 이창동 감독의 작품을 통해 스크린에 얼굴을 비춘 배우 문소리는 이후 홍상수 감독의 ‘하하하’와 ‘자유의 언덕’,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 박찬경 감독의 ‘만신’, 임상수 감독의 ‘바람난 가족’과

‘하녀’를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유수 영화제에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로 이름을 날리 알린 배우다. 최근에는 ‘매기’와 ‘보건교사 안은영’을 선보이며 누구의 얼굴도 아닌 문소리의 얼굴로 보는 이를 긴장시킨 바 있다.

아주 침착해 보이지만 굉장히 예민하기도 한 그 순간의 문소리를 떠올려본다. 대체적으로 그녀가 정지해 있을 때 우리는 안심 비슷한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도약 직전의, 무언가를 낚아채기 직전의 문소리이기 때문에 결코 정적이지만은 않다. 예열 중의 고요다. 문소리의 필모그래피 중 ‘리틀 포레스트’와 ‘사과’라는 다소 앞진해 보이는 작품들에서도 마찬가지다. 문소리는 일단 차분한 태도로 마음을 시킨 후 전형성과는 거리가 먼 곳으로 인물을 데려가는 배우다. 그것은 코미디 장르인 ‘스파이’나 ‘관능의 법칙’에서도 마찬가지다. 문소리는 한순간도 수동적이지 않다. 그녀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이미 그녀의 몸 안에서 꿈틀거리고 그 운동성은 눈동자와 입술로 빠르게 전달된다. 그러니까 스크린을 통해 문소리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릴 때 관객들은 활자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를 신나게 발산하는 배우의 퍼포먼스를 목격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그것은 주성치의 코미디나 성룡의 액션을 보는 것과도 같다.

그래서 어디선가 문소리가 들릴 때 나는 긴장이 된다. ‘아가씨’에서, ‘보건교사 안은영’에서, ‘매기’에서 그녀는 일상복을 입지 않는다. 아, 이런 것을 ‘육화’라고 하는구나. 그래 ‘문소리’라는 통째로 작품 안으로 들어간 것이구나.

‘박하사랑’과 ‘오아시스’라는 이창동 감독의 작품을 통해 스크린에 얼굴을 비춘 배우 문소리는 이후 홍상수 감독의 ‘하하하’와 ‘자유의 언덕’,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 박찬경 감독의 ‘만신’, 임상수 감독의 ‘바람난 가족’과

2021 태양광 보조사업 설치희망자 예비모집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단독 주택

- 기존/신축 주택 소유자, 소유예정자
- 설치용량 3kW까지 지원
- '20년 기준 공사비의 50% 지원
- 공동주택 지원가능
- 타운하우스 등 단체설치 특별우대



상가 건물

- 사무실/식당/펜션/공장/병원/학원
- 설치용량 50kW까지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지원사업 적용
- 건물 용도별 맞춤형 컨설팅/설계/시공
- 공사비의 약 50~55% 지원

영업사원 모집

- 태양광 보조사업 영업 경력자 우대
- 태양광발전소(RPS) 영업경력자 우대
-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우대
- ▶이력서접수: 워크넷 (work.go.kr)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